월요논단

‘스포츠’는 제주발전을 위한 촉매제

정 구 철
전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매일 아침 뉴스에서는 세계 최고 스포츠 무대를 누비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들의 경기소식을 중요 뉴스로 다룬지 오래다. 국내에서도 관중으로 가득한 경기장과 열띤 응원의 함성은 이미 도시 문화로 정착되었다. 이렇듯 우리나라도 스포츠는 문화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

스포츠는 신체 문화를 넘어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경제적으로 매우 유용하다.

고금을 통하여 스포츠는 통치자의 목적 수행을 위한 도구, 오락 제공, 전쟁을 대비한 체력 단련 등 다양하게 이용되었다.

현대 사회에서도 스포츠는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화, 복지,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큰 기능을 하고 있고 그 속성에는 많은 가치있는 것들이 내재되어 있다. 선진 산업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스포츠의 위상은 대단하다. 정치적으로 스포츠는 ‘정치적 우파’라고 불릴 정도로 긴밀하며, 경제적으로도 스포츠 산업 관련 제품 생산과 판매, 스포츠 마케팅 시장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며, 대형 스포츠 이벤트 개최를 통하여 지역 사회 간접시설 들을 건설하며 지역 경제에 막대한 유익을 주기도 한다. 또한 스포츠 문화가 세대를 초월하여 단합시키며 다양한 사회 계층 통합에 유용하게 이용된다. 건강한 시민 사회 형성에도 스포츠는 순기능으로 작용한다.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도 과거에는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는 평가도 받았으나 지금은 오히려 환경 보존에 유익하다. 중국의 경우, 2008년 북경 올림픽을 계기로 비위생적인 도시환경과 대기오염을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스포츠는 평화와 인권, 성평등에도 유용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기회 향상과 소외 계층을 위해서도 유익하기에 유네스코도 IOC와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다. 스포츠의 경제적 가치만 해도 미국에서만 2017년부터 2022년 까지 69조 달러 이상의 시장 형성을 예측하고 있는데 전 세계를 포함시킨다면 엄청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우에도 2017년 한해의 스포츠 관련 상품 조 수익 34조원, 스포츠 관련 서비스 23조원, 스포츠 시설 투자 17조원으로 보고했다.

제주 경제의 중요한 핵심 축은 청정 지역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1차 산업과 수려한 풍광을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이다. 특히 관광산업의 경우 2016년 1585만2980명을 정점으로 입도 관광객 수가 소폭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2018년 1431만3961명으로 확실한 관광 수익원 기능을 하고 있다. 주목해야할 점은 관광 조수익 중 거의 대부분이 스포츠로 인한 것임을 간과하고 있다. 아쉬웁게도 행정 당국과 스포츠계는 스포츠의 실 가치에 대한 이해가 절대 부족하다. 행정에서는 스포츠를 제주 발전을 위한 좋은 파트너 보다는 여전히 행, 재정적 시혜가 필요한 대상 정도로 이해하고 있고 스포츠계도 행정에 의존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음은 유감이다.

스포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갖고 있기에 제주발전을 위한 촉매제로 이용되길 기대한다.

사설

농업인 월급제 성패, 농가 참여에 달렸다

제주도가 오는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작물 수매 금액의 30~60%를 월별로 나눠서 농업인에게 선지급하고 수확 후 그 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농작물 재배면적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농작물 수확 때까지 수입이 없는 농가로서는 그때 그때 필요한 영농자금을 이자 부담없이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농업인 월급제에 참여하는 지역농협은 조천·한경·고산·중문농협으로 결정됐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 대상은 농협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입니다. 시행 품목은 감귤·만감류·브로콜리·마늘·월동무로 선정됐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무이자 대출이나 마찬가지여서 금융이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평상시 생활비는 물론 자녀 학비 등을 충당하는데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무이자 대출 성격이어서 농작물 소득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리 받은 월급이 빚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농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다른 지방의 사례를 보면 별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참여가 매우 저조해 제도 정착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충청남도 당진시가 충남에서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했지만 신청자가 아주 미미합니다. 전체 농민 1만2000여명 가운데 0.5%(67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서산시도 0.4%에 머무는 등 농민들의 호응이 낮자 이들 지자체는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도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 경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농작물은 수확할 때까지 적잖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수입이 없을 때 필요한 자금을 쓸 수 있어서입니다. 물론 한꺼번에 목돈을 받길 원하는 농가가 많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방에서 농가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일 겁니다. 제주 역시 농업인 월급제가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 의문입니다. 이참에 농민의 삶의 질을 보다 높이는 실질적인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농민수당을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민수당은 갈수록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열린마당

우리 모두를 위한 작은 실천, 기초질서 지키기

조 진 호
제주시 조천읍사무소

흔히 기초질서를 이야기 할 때 ‘깨진 유리창 이론’을 인용하곤 한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얼마 전 한라산에서 발견된 30년 넘은 쓰레기는 우리의 부끄러운 기초질서 수준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뿐만 아니라 생활권 주변에 방치 쓰레기 더미, 주정차 금지 지역에 연이어 불법 주차된 차량들, 골목 안 노상 위에 적치된 적치물 등 주변을 배려하지 않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루어진 일탈행동들이 세계인의 보물섬이라 자부하는 제주를 병들게 하고 있다.

무너진 기초질서 의식을 회복하기 위해 제주시에서는 시민 주도의 기초질서 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 일회용품 안쓰기, 올바른 분리배출하기, 쓰레기 불법투기 안하기, 주변 주차장 이용, 걸어서 이동하기, 인도·횡단보도 위 주정차 안하기, 내 집앞 도로 위 물건 적치 안하기 등을 실천과제로 시민이 적극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천읍에서도 기초질서 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이와 함께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특히, 주민 클린하우스 지킴이 운영, 기초질서 민관 합동 단속반 운영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기초질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모두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마음만은 넉넉하고 이웃을 서로 돌보던 ‘수눌음 정신’을 되살려 ‘나 하나쯤’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해 잘못된 기초질서 의식을 바로 세운다면 우리사회는 다시 행복한 공동체사회가 될 것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공무원 단체관람이 양극화문제에 경각심 될 것”

도의회 직원들 ‘기생충’ 관람

○…제주도의회가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차지한 영화 ‘기생충’을 단체 관람할 예정.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김태석 의장은 최근 의회 총무과를 통해 문의한 뒤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10일 오후 7시 30분 롯데시네마 아라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 단체 영화관람을 추진.

김 의장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양극화가 확산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기생충은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보여주는 영화”라며 “공무원 단체 관람이 그런 문제에 관한 하나의 경각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 표성준기자

감자 선별 자동화 시스템 구축

○…안덕농협이 지난 5일 사계지점 부지내에 전자식 감자선별기를 설치하고 가동을 시작하면서 농가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9일 제주농협지역본부에 따르면 서귀포시와 농협중앙회가 참여하는 지자체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된 감자선별기가 안덕농협에 설치되면서 자동화 선별포장 시스템이 구축.

이에 따라 감자공선회를 통한 공동선별시스템의 시행으로 규격화된 상품출하가 가능해지고 신품종 ‘탐나’ 감자의 재배면적 확대로 연간 1억2000여만원의 농가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농협 등은 예상. 조상윤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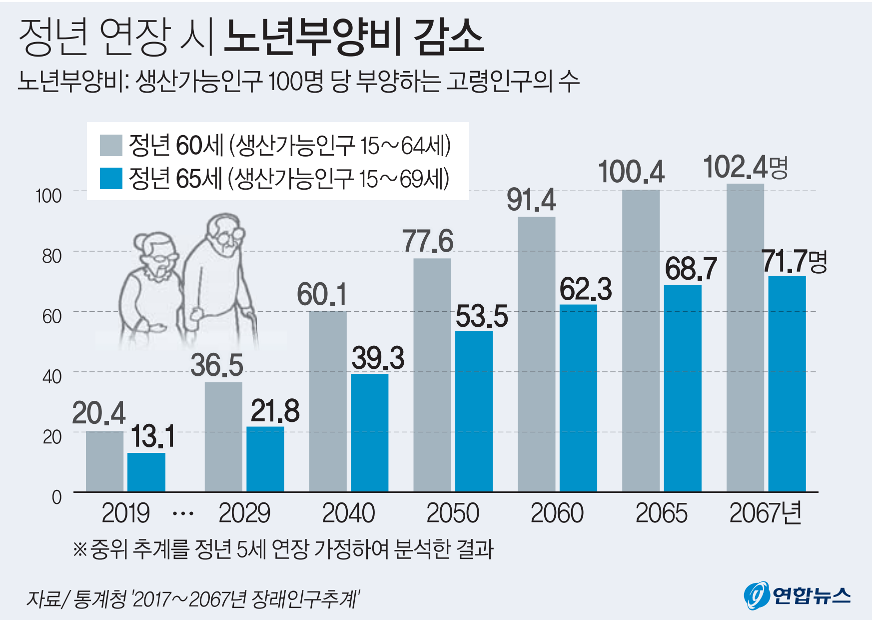
해비치축제 무풍지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한문연) 주최로 제12회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이 10일 개막해 곳곳에서 공연 등이 열리지만 정작 도내 일부 한문연 회원 기관은 무풍지대.

제주에는 도문예회관, 제주아트센터, 서귀포예술의전당 3곳이 회원기관인데 제주아트센터는 다른 2곳과 달리 관련 행사가 없는 상황.

제주아트센터 관계자는 “한문연에서 요청한 대관 날짜가 길었고 자체 운영 일정과 겹쳐 벌어질 일”이라고 했는데 연례 행사임에도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 진선희기자

그래픽 뉴스



부 고

김방홍(KBS제주 심의위원) 어머니 남평문씨 을랑(향년 94세)께서 서기 2019년 6월 9일 07시 45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6월 10일(월)
▶발인일시: 2019년 6월 11일(화) 오전 7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분향실
▶장 지: 애월읍 신엄리 선영

아 들 김방신 며느리 조인자
방홍 이선화
방희 박정림
방근
딸 김연순 사 위 신중섭
영순

※ 연락처 : 김방신 010-2939-6043
김방홍 010-2690-6789
이선화 010-9120-0369
부민장례식장 742-5000

부 고

김남선(前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어머니 경주김씨 순화(향년 97세)께서 서기 2019년 6월 9일 오후 3시 14분에 숙환으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6월 11일(화)
▶발인일시: 2019년 6월 12일(수)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3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

아 들 김봉선
남선 며느리 오금자
장선 양의수
딸 김복선 사 위 임학영
복실 고관수
복희 문경보
손 자 김정진 손 녀 김은숙
정윤 소영
정환 유미
정민
외손자 임용철 외손녀 고혜림
고지윤 문주연
문현지

※ 연락처 :
김남선 010-3897-7388 김복실 010-8662-1501
김장선 010-7163-3567 임학영 010-3694-4784
문경보 010-3693-0633 오금자 010-3694-0653

정 정 공 고

본지 2019년 6월7일 게재된 김종국의 무연분묘개장공고(1차) 중 6항의 신고처와 하단의 공고인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1096번길 92-101”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4098번길 92-101”로 정정 공고함.

2019년 6월 10일

김종국 ☎ 010-3693-6189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른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골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대학병원 임상결과 1일 5g섭취 식품안전성 입증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
진흥원
판매장 등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백도라지연구소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영귤
• 한라봉 • 히로시마7호
• 블러드 오렌지(다로코)
• 천전(가와다) 온주(천지향 8년생) (당도 16브릭스 이상)
※ 묘목 접수 판매(1년생 묘목 접수만 취급)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 귀 종 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 유라실생 1년생 * 황금향 3년생
* 유라조생 (감귤박람회 최우수 감귤) 7년생
* 궁천 (궁천변이지) 1,2,5년생
* 일남희 (제일 빠른 극조생) 6년생
* 레드향(무독) 천혜향(무독) 1,2,3년생
* 고림 남진해 수루미 레몬 2년생
* 한라봉 6년생 * 하례조생 1년생
* 자갈(돌멩이) 필요하신분 연락요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육묘 35년
석 파 농 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제주 18-2003-20-08
010-2699-2355